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 호스피스 다학제팀 소진 프로그램



7월 17일~8월 27일 호스피스에 종사하는 필수인력, 보조 활동 인력, 자원봉사자까지 팀을 조직

하고 원하는 프로그램 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진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준비하는 시간부터 마무리하는 시간까지 함께하는 동료들과 팀워크를 다지는 힐링의 시간이었다.

▶ 환자 이벤트 '다사라기 소품 전시회'



8월 8일~11일 미술 작가가 되고 싶었던 다사라기(예명)님의 소품 전시회가 마리아병동에서 있었다. 환자는 감정이 벅차올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두 마디 인사말로 모든 마음을 담아 표현하였다.

▶ 자문형 호스피스 간담회

9월 25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자문형 호스피스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교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자문형 호스피스의 활성화로 한 발짝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다.

▶ 호스피스완화의료 표창 수상

10월 11일 호스피스완화의료 주간을 맞이하여 호스피스병동 오픈 때부터 활동했던 조수홍 자원봉사자

가 중앙호스피스센터 국립 암센터원장 표창 우수봉사자상을, 호스피스 담당 가정의학과 김선현 교수가 호스피스유공자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으셨다.

▶ 새 삶 가족(사별가족)모임 위령미사



11월 위령성월을 맞이하여 마리아병동에서 가족을 떠나보낸 가톨릭 신자 새 삶 가족(사별가족)들과 함께 위령미사를 봉헌하며 연령을 기억하고 따뜻한 위로의 마음을 나누었다.

대구파티마병원

▶ 호스피스완화의료 캠페인

10월 16일 호스피스완화의료 주간을 맞이하여 병원 로비에서 캠페인을 통해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관심 있는 이들에게 개별 맞춤 상담을 하였다. 병원 내에서 호스피스 활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홍보를 함으로써 긍정적인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되었으며, 후원회 기금마련을 위한 바자회도 함께 실시하였다.





▶ 사별가족 지지 모임



11월 5일 호스피스병동에서 임종한 고인의 가족들을 위해 “당신을 기억하며, 당신을 추억하며”라는 주제로 사별가족 지지 모임을 개최하였다. 50명이 참석하여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미사가 봉헌되었으며, 생전 완화의료병동에서의 일상을 담은 동영상을 시청하였다. 사별가족들은 투병 생활을 함께 했던 직원 및 봉사자들과 고인을 추억하며 사별의 슬픔을 표현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또한, 원예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고인과 함께한 시간을 돌이켜보며 슬픔보다는 사랑을 주고받았음을 기억하고, 앞으로의 삶을 힘차게 살아나갈 것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다.



▶ 추석 행사

추석을 맞이하여 환우와 가족들을 위해 행사를 진행했다. 송편 만들기 대회를 개최해 표를 가장 많이 받은 분께 선물도 드리고 송편을 찌는 동안 다 함께 버블쇼를 관람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 제3기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 인력 표준교육 수료식



9월 21일~11월 9일 총 60시간의 호스피스 전문 인력 표준교육이 진행되었다.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하게 될 전문가를 대상으로 총 39명의 호스피스 전문 인력이 탄생하였다.

▶ 호스피스 바로 알기 캠페인

호스피스완화의료 주간을 맞이하여 홍보 행사를 진행했다. 본원, 천주교 대전교구 띠앗축제, 유림공원 국화축제 등에서 호스피스에 대한 오해를 풀 수 있는 퀴즈를 맞추고 기념품을 나누며 올바른 인식을 알리는 시간이었다.





▶ 호스피스 바로 알기 교육

대전교구 노인 사목부와 연계하여 교구 내 세 본당의 노인대학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호스피스 바로 알기' 교육을 했다.



부산성모병원

▶ 일본 성 마리아 대학교 간호학과 기관 탐방



8월 21일, 일본 성 마리아 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및 학생이 부산성모병원을 내방, 견학했다. 부산가톨릭대 간호학과와 일본 성 마리아 대학교 국제 교류사업의 일환으로 병원 관계자와 상견례 후 완화의료센터 등의 병원 시설 등을 둘러보았다.

▶ 4, 5, 6차 사별가족 모임

8월 20일, 10월 22일, 12월 17일 사별 후의 슬픔은 물론 그리움의 시간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는 기억들로 인해 아파하는 사별가족들이 모임 안에서 상실의 아픔과 슬픔을 나누고 서로 위로와 용기, 격려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우며, 남은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을 배우는 소중한 만남을 팀원들은 지속적인 관심과 돌봄을 유지하고자 한다.

▶ 완화의료 주간 행사 - 사별가족 만남의 날



세계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날을 맞아 완화의료 캠페인 주간을 시행해 완화의료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관심을 고취시키고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 고인들의 사진 전시와 10월 22일에는 사별가족의 아픔을 나누고 고인을 그리는 '사별가족 만남의 날'을 개최했다. 미사와 함께 고인에게 편지를 써서 낭독하며 서로의 아픔을 나누었으며, 사별가족을 위로하는 공연 및 풍선 날리기 등의 행사도 하였다.

▶ 하반기 자원봉사자 심화교육



환자와 가족들에게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돌봄을 유지하고 자원봉사자들의 자질 향상 및 유지를 위한 심

회교육을 매월 실시하여 자원봉사의 의미와 역량을 강화하였다.

▶ 호스피스 전문기관 우수자원봉사 유공자 표창

국립암센터에서 주관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우수 자원봉사자 시상식'에서 김여정, 정도식, 김혜진, 정연희 봉사자 1,000시간 이상의 공적 사항을 인정받아 수상하였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 호스피스 일반인 교육



8월 21일~22일 일반인을 위한 호스피스 교육을 개최하였다. 호스피스에서 근무하고 있는 실무자 중심으로 강사진이 구성되어 수강생들에게 생생한 현장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고 수강생에게 자기 개발의 시간이 되었다.

▶ 기관 견학 (샘물 호스피스병원, 모현 호스피스센터)

9월 19일, 26일 직원들의 소진방지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타 호스피스 기관을 방문하여 센터 운영과 직종별 참관을 진행하였다. 기관 견학을 통해 직종별 정보 교류를 진행할 좋은 기회가 되었고, 선후배 간의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통해 친목의 시간을 가졌다.

▶ 하반기 전체 사별가족 모임

11월 7일 위령 성일을 맞이하여 직전 6개월간 사별한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반기 전체 사별가족 모임이 진행되었다. 사별가족들은 서로의 감정을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병동에서의 감사했던 마음을 표현하며 호스피스를 기억하였다. 또한 고인을 위한 편지와 메시지를 봉헌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 호스피스자원봉사자 퇴임식



11월 21일 호스피스를 위해 헌신하신 다섯 명의 자원봉사자(강경자, 황순옥, 이재현, 이성표, 유장근) 퇴임을 기념하는 시간을 가졌다. 후배 자원봉사자들의 특별 공연까지 더해진 유쾌하고 풍성한 행사가 진행되었다.

▶ 서울 가톨릭 연극협회 공연: 크리스마스 선물

11월 22일 서울 가톨릭 연극협회와 함께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연극을 준비하였다. 환자와 가족을 위해 짧은 시간으로 각색해 진행된 연극 공연은 감동을 전해주며 '가족의 의미'를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 사랑의 마술 공연 이벤트

호스피스병동에 입원 중인 환자의 아드님이 아버지를



위해 마술 공연을 하고 싶다는 뜻을 밝혀 '사랑의 마술 공연'을 실시하였다. 입원 중인 호스피스 환자 및 가족들이 실내 정원으로 모여 마술 공연을 감상하며 즐거움과 따뜻함을 나누는 시간이었다.

▶ 가족 소풍 나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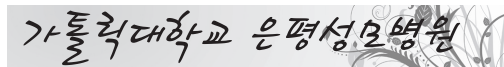
호스피스병동의 환자 및 가족들과 팀원들이 본원 내 수녀원 정원으로 가족 소풍 나들이를 다녀왔다. 자연을 보면서 대화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행복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며, 오랜만에 외출을 통해 정서적 환기를 유도하고 추억을 쌓을 수 있었던 행복한 시간이었다.

▶ 호스피스 소진관리 워크숍

팀원들의 소진관리를 위해 가을 단풍과 자연의 기운을 만끽하며 잠시 쉬어갈 수 있는 1박 2일 호강스 여행을 다녀왔다. 교대근무로 인해 1차, 2차로 나뉘어 럭셔리한 숙소에서 여유로움도 즐기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며 자주 만나지 못했던 팀원들 간의 이야기 나눔을 통해 서로를 다독이고 격려하는 계기가 되었



다. 몸과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힐링의 시간이었다.



▶ 2019년 사별가족 모임



9월 25일, 11월 20일 제3, 4차 사별가족 모임을 진행하였다. 사별한 가족이 서로의 슬픔을 프로그램을 통해 표현하고 나누는 치유의 시간이 되었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간다면서 행복해하였다.

▶ 호스피스의 날 행사

10월 8일 병원 1층과 G층 로비에서 병원 내원객인 환자와 가족, 그리고 직원을 대상으로 '호스피스의 날' 행사를 진행하였다. 행사에 364명이 참여하였다.

▶ 함께 나란히 데이

11월 11일 함께 나란히 지지하며 나아간다는 호스피스적 의미로 '함께 나란히 데이'로 이름을 바꾸고 가래떡과 빼빼로를 나누고, 환자와 가족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였다.



▶ 자원봉사자 소진 프로그램

11월 13일 환자와 가족과 담소를 나누고 마사지를 해드리고 영적 지지를 해드리면서 나뉠의 소진을 경험하였는데 '진관사' 경내를 걸으며 지친 마음은 비우고 새로운 마음을 다짐하고 다른 요일 봉사자들과 함께 친교를 나눌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다.



▶ 호스피스봉사자 교육

11월 19일 심화교육으로 '림프부종 관리와 마사지 요법'을 배우며 일반 마사지와 다름을 알게 되었고 새롭게 배우는 것이 좋았으며, 배운 것을 바로 시행할 수는 없지만, 지속적 교육을 통해 실천해 볼 것을 다짐하였다.

익산성모병원

▶ 소진 프로그램

9월 30일 완화의료팀 9명이 고창 선운사에 다녀왔다.



돌아오는 길에 식사, 차를 마시며 어려웠던 일들을 서로 나누며 보듬어 주는 시간을 가졌다.

▶ 완화의료 주간 행사



10월 18일 전북 호스피스완화의료 주간 행사가 익산역 광장에서 있었다. 전북대학교병원 권역 호스피스센터 주관으로 7개 병원이 모여 호스피스 상담, 웹툰 전시, ox 퀴즈, 홍보물 배포 등 다양한 형태로 홍보를 하고 결속을 다졌다.

▶ 호스피스완화의료 3주년 미사



9월 24일 김기곤 사제 주례로 호스피스완화의료병동 3주년 기념미사를 봉헌하였다. 20여 분이 참석하여 미사강론을 통하여 환자와 가족을 돌보는 의료진과 직원, 봉사자들이 실 가족 개념을 넘어 영가족의 개념에 이르는 전인적 봉사의 삶이 되도록 당부하였다. 미사 봉헌 후 환자들에게 안수를 주시고 간단한 축하 파티가 있었다.

▶ 호스피스 견학

11월 15일 우리병원에 원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원에서 원장, 부원장교무를 비롯한 11명이 시설 견학을 왔다. 익산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의 현황과 실재에 대한 브리핑이 있었고, 실재적인 질문을 많이 주고받았다. 시설과 규모는 작지만 한눈에 들어오고 따뜻한 분위기가 인상적이라는 소감을 이야기해 주었다.

▶ 호스피스완화의료 심화교육

11월 21일 황관옥 회장이 “호스피스에서의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주제로 강의가 있었다. 병원직원, 호스피스봉사자, 수녀 30여 명이 참석하여 강의 중에 이론과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면 3가지를 찾고 서로 나누는 실습을 통하여 실재적이고 효과적인 인간관계와 의사소통을 학습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 사별가족 모임



12월 13일 5회기를 마지막으로 4가족 5분이 오셨다. 예수님의 생애 퍼포먼스를 동영상으로 감상하고 원예 치료사의 진행으로 가족들이 각자 고인에 대한 자신

의 마음을 작품에 담아 소감을 들으며 공감하고 치유 받는 시간이었다. 작업을 마치고 점심을 대접해 드리면서 가족들끼리 친밀감을 느끼며 담소하는 가운데 위로와 격려가 오가는 자리였다.

천주의 성모한병원

▶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날 캠페인



10월 8일 세계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날을 맞이하여 광주, 전남, 제주 호스피스기관 공동 캠페인을 무등산 국립공원에서 실시하였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정보 제공과 긍정적인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되도록 홍보하였다.

▶ 자원봉사자 आय회



10월 15일 호스피스 돌봄으로 인한 자원봉사자의 스트레스 해소 및 호스피스 봉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소진 예방 활동으로 진도 운림산방과 소치미술관, 신비의 바닷길을 다녀왔다. 소진 예방 할

등을 계기로 직원과 봉사자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더욱더 친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기로 다짐하였다.

▶ 사별가족 모임



10월 11일 '그리움도 행복이어라'라는 주제로 사별가족 모임이 진행되었다. 가족을 잃은 슬픔과 이야기들을 같은 경험을 한 이들이 모여 서로 간의 일상을 격려하고 지지해드리면서 마음속에 아픔들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다.

▶ 일반인 대상 호스피스.완화의료 교육 실시



11월 12일, 일반인을 대상으로 호스피스 활동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호스피스완화의료로 교육을 하였다.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 곁에 가족 또는 지인이 같이 하며 함께 죽음을 지켜보는 것이 임종 간호다'는 말이 와 닿았다는 소감과 함께 말기 암 환자와 그 가족들을 신체적, 정신적, 영적, 사회적으로 돌보는 교육을 통해 호스피스 대상자를 이해하고 도울 수 있으며, 삶과 죽음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는 시간이었다.

한국가톨릭호스피스협회

▶ 2019년 한국가톨릭호스피스협회 세미나 개최

2019년 한국가톨릭호스피스협회 세미나 - 호스피스 팀원의 소진 관리



9월 27일 서울성모병원 지하 강당에서 <호스피스 팀원의 소진 관리>라는 주제로 호스피스 전문인 74명이 참석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간호사와 봉사자의 소진 경험 발표 시간과 임상 호스피스 현장에서의 소진 관리(은평성모병원 오은숙), 다시 살아가는 행복-ABC 원리(서울성모병원 채정호)의 특강을 실시하였고 호스피스 관계자들이 소진 경험을 나누며 서로 공감하는 시간이 되었다.

▶ 제3회, 4회 이사회 개최

7월 31일, 11월 5일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3회 이사회에서 세미나 주제(호스피스 팀원의 소진 관리)와 프로그램, 보이스 휘 호스피스 음악회 홍보, 4회 이사회에서는 2020년 봉사자의 날 피정 프로그램 등을 논의하였다.